

동물 부위 은유의 특징과 작용 원리*

유희정·최경봉**

(고려대학교 박사 수료생·원광대학교 교수)

<Abstract>

Yu Hui-Jeong, Choi Kyeong-Bong. 2020. The Metaphors of Animal Body Parts: Characteristics and How They Work. *Korean Semantics*, 68.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metaphors of animal body parts, explained characteristics and principles of the conceptualization, and discussed how these metaphorical expressions can be expanded. In chapter 2, we dealt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animal metaphors and the metaphors of animal body parts and pointed out that the latter show more complex aspects than the former in the conceptualization. In chapter 3, we divided the metaphorical expressions of animal body parts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ir constructions to examine how they are conceptualized. The metaphorical expressions consisting of solely an animal body part are mainly associated with the negative valuation if it correspond to a human body part. Otherwise they are mostly influenced by the frame of UP-DOWN metaphor. The metaphorical expressions consisting of an animal plus an animal body part are usually associated with the low valuation if the focus of their source domain is *figure* but they are affected by the symbol of the animal and the function of the animal body part if the focus of their source domain is *function*. In chapter 4, we captured the networks from the metaphors of animal body parts and revealed how the metaphorical expressions be expanded through these networks. This study emphasized that one can explain and predict the expandability of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7672).

** 제1 저자: 유희정, 교신 저자: 최경봉

metaphorical expressions if they examine aspects of the expansion by the networks from the metaphors of animal body parts and the target domains mapping them in discourse contexts.

핵심어: 동물 부위 은유(metaphor of animal body part), 동물 은유(animal metaphor), 동물 속담(animal proverb), 동물 관용어(animal idiom), 신체 은유(body metaphor), 개념화(conceptualization), 근원영역(source domain), 목표영역(target domain), 은유 관계망(metaphor network), 은유 표현(metaphorical expression)

1. 서론

이 연구에서는 동물 부위명이 나타난 표현에서의 은유 양상을 살펴보면서, 동물 부위 은유의 특징과 작용 원리를 규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동물 부위 은유에서 포착되는 관계망과 그 관계망을 통해 은유 표현이 확장되는 원리이다.

은유 표현은 인간에게 익숙한 대상을 이용하여 인간의 세계와 그 세계의 사태를 개념화하는 표현 기법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물을 은유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 동물은 인간을 은유화하는데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은유 재료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물 은유는 은유적 개념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맥락뿐만 아니라 속담이나 관용어와 같은 관용 표현의 원리를 설명하는 맥락에서도 조명을 받아 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동물 부위 은유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동물 부위의 특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동물 부위를 동물로 환유하거나 인간의 신체 부위에 대응하여 사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은유 연구에서 동물 부위 은유를 별도로 논의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동물 부위를 동물로 환유하여 사고할 수 있다는 점은 동물 은유와 동물 부위 은유의 상관성을 특별히 설명해야 할 이유가 되며, 동물의 부위를 인간의 신체 부위에 대응하여 사고할 수 있다는 점은 인간의 신체 부위에 대응되는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가 은유적 개념화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동물 부위 은유의 특징과 작용 원리’를

규명하는 본고의 논의는 동물 부위 은유를 동물 은유 혹은 신체 은유 연구에 포함하여 다루어 옴으로써 생긴 공백을 채운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동물 부위 은유에 초점을 맞춰 그 특징과 개념화 작용의 원리를 규명하는 것은 동물 부위 은유 표현의 확장 가능성을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동물 부위 은유 표현에서 포착되는 다양한 관계망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동물 부위 은유 표현이 확장되는 원리를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주로 관용 표현의 양상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전형적인 개념화 양상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동물 관련 은유 연구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장에서는 동물 은유와 동물 부위 은유의 상관성을 설명하면서 동물 부위 은유의 특성과 작용 원리를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괄할 것이다. 3장에서는 동물 부위 은유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은유적 개념화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동물 부위명의 관계망과 이를 통해 개념화하는 목표영역의 관계망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살펴보면서, 은유 표현의 확장 원리를 설명할 것이다.

2. 동물 은유와 동물 부위 은유의 상관성

동물 부위 은유에 대한 논의는 동물 은유에서의 개념화 양상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정아(2015)에서는 동물명 관용 표현에서의 개념화 양상을 설명하면서, 동물명 관용 표현을 해당 표현에서 부각되는 측면, 즉 ‘모습’, ‘행동’, ‘관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바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물의 특징적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개념화하는 양상, 동물의 특징적인 ‘행동’이 인간의 행동이나 이로 인한 사태를 개념화하는 양상, 동물과 동물 혹은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인간을 둘러싼 상황을 개념화하는 양상 등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동물을 통한 은유적 개념화에서 부각되는 ‘모습’, ‘행동’, ‘관계’가 많은 부분 동물 부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동물의 ‘모습’, ‘행동’, ‘관계’는 동물 부위의 ‘형상’, ‘기능’, ‘가

치'와 결부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코끼리 다리', '개코', '개빠다귀'와 같이 동물명과 부위명이 결합된 구성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동물의 '모습', '행동', '관계'가 동물 부위의 '형상', '기능', '가치'와 상호작용하여 인간의 모습이나 행동 그리고 인간관계를 개념화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 (1) ㄱ. 코끼리 다리 : 코끼리(모습) ⇔ 다리(형상) : 다리가 굵은 사람
 ㄴ. 개코 : 개(행동) ⇔ 코(기능) : 냄새를 잘 맡고 다니는 사람
 ㄷ. 개빠다귀 : 개(관계) ⇔ 빠다귀(가치) : 보잘것없는 사람

(1ㄱ)에서 '코끼리'는 크기가 특징적인 동물이며, 이러한 특징이 '다리'라는 구성 부위와 상호작용하여 '다리가 굵은 사람'을 개념화한다. (1ㄴ)에서 '개'는 냄새를 맡고 다니는 행동이 특징적인 동물이며, 이러한 특징이 '코'라는 기능성 부위와 상호작용하여 '냄새를 잘 맡고 다니는 사람'을 개념화한다. (1ㄷ)에서 '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관습적 상징을 가지게 된 동물이며, 이러한 특징이 '빠다귀'라는 가치 없는 부위와 상호작용하여 '보잘것없는 사람'을 개념화한다.

위의 개념화 양상을 보면 동물 부위가 등장하는 은유 표현에서의 개념화 작용이 동물만 나타나는 은유 표현의 개념화 작용보다 복잡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개코'를 예로 들면, '부위를 통해 전체를 개념화하는 환유 작용'(코=개), '동물 부위와 인간 신체를 대응시켜 개념화하는 작용'(개의 코=인간의 코), '동물로 인간을 개념화하는 작용'(개=인간)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코'의 은유적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더구나 '동물'에 내재된 '관습적인 상징 의미'가 작용하여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념화 작용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즉, '개'는 관습적으로 '저속한 대상'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가치 평가가 작용하면서 '개코'에는 '냄새를 잘 맡고 다니는 사람'을 낮추는 개념화 작용이 덧붙게 되는 것이다.

(2) ‘개코’에서의 개념화 양상

환유적 개념화

코[기능] … … … … … 개

|| … … … … … || 은유적 개념화+관습적 상징(비속함)

코[기능] … … … … … 사람

(3) 가. 어떤 일로 오늘은 그 개코가 오지 않았는지 몰라? 냄새를 못 맡았나?

나. 어떻게 그걸 알아냈어? 자네 코는 역시 개코야!

그런데 ‘꼬리’, ‘뿔’과 같이 인간에게는 찾을 수 없는 부위가 은유 표현에 사용될 때는 동물과 동물 부위의 상호작용이 위의 경우처럼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꼬리가 밟히다’, ‘뿔이 나다’와 같은 관용적인 은유 표현에 나타난 ‘꼬리’와 ‘뿔’의 개념화 작용을 이해할 때 ‘개’나 ‘염소’와 같은 구체적인 동물들에 초점이 놓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신체 부위와의 대응을 통해 은유적 개념화가 이루어는 동물 부위 은유 표현과는 다른 점이다. 따라서 ‘꼬리’, ‘뿔’ 등처럼 인간 신체 부위와의 대응이 필요 없는 경우는 ‘개코’, ‘코끼리 다리’ 등처럼 그러한 부위를 가진 동물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유 표현의 개념화 작용에서 중요한 것은 ‘꼬리’와 ‘뿔’과 같은 동물 부위의 형상이나 기능으로 이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동물을 환유한 후, 그 동물의 모습, 행동, 관계를 통해 목표영역인 사람의 모습, 행동, 관계를 개념화하는 것이다.

(4) ‘뿔’의 개념화 양상

환유적 개념화

뿔[기능: 공격 도구/형상: 날카로움] … … … … … (전형적 동물)

|| … … … … … || 은유적 개념화

(기능: 공격 도구/형상: 날카로움) … … … … … 사람

1) 이러한 은유 표현은 동물 부위와 인간 신체를 대응시켜 개념화하는 작용(개의 코=인간의 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5) ㄱ. 아기가 한번 뺨을 세우면 아무리 달래도 계속 울어 댜다.
- ㄴ. 대치 정국에서 야당은 정부와 각(角)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상의 개념화 양상을 보면, 동물 부위 은유에서는 동물을 통한 은유적 개념화 양상과 동물 부위를 통한 환유적 개념화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복합적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동물 부위 은유의 특징과 작용 원리를 규명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동물 부위 은유 표현의 유형과 특성

앞선 2장에서 논의한 토대로 할 때, 동물 부위 은유는 그 구성 형식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어 그 개념화 양상을 천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유형은 ‘동물 부위명’만이 포함된 은유 표현이고, 둘째 유형은 ‘동물명’과 ‘동물 부위명’이 결합된 은유 표현이다. 이 장에서는 두 구성의 은유 표현에 나타난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며 유형별 특성을 규명할 것이다.

3.1. 동물 부위명이 단독으로 활용되는 경우

동물의 부위명이 단독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동물 부위의 형상이나 기능이 인간이 가진 신체 부위에 대응하는 경우와 대응하지 않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인간이 가진 신체 부위와 대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은유 표현의 개념화 양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6) ㄱ. 나만 쳐다보는 입이 몇 개인지 모른다.
- ㄴ. 나만 쳐다보는 주둥이가 몇 개인지 모른다.

위의 예에서 ‘주둥이’는 인간 신체 부위명인 ‘입’과 대응되는 동물 부위명이다. 이러한 대응 관계에 따라 (6ㄱ)에서 인간 신체 부위인 ‘입’이 ‘사람’을 환유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처럼, (6ㄴ)에서 동물의 부위명인 ‘주둥이’는 ‘사람’을 환

유적으로 개념화한다. 그런데 앞서 (2)에서 보았듯이 ‘주둥이’가 ‘사람’을 환유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주둥이’로 ‘동물’을 개념화하는 과정과 ‘동물’로 ‘사람’을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주둥이’와 ‘입’의 대응은 결국 ‘동물’로 ‘사람’을 개념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화 과정이 전제되기 때문에, (6ㄴ)처럼 동물 부위명이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 ‘동물’로 ‘사람’을 개념화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동물 부위명인 ‘주둥이’로 ‘사람’을 개념화하는 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동물 부위명이 인간의 신체 부위명과 대응되면서 동물 부위가 환유하는 동물이 불명확할 경우, 동물을 인간의 하위 층위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동물 부위명이 환유하는 인간은 ‘부정적 인간’으로 개념화된다.²⁾ 그리고 <부정적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은유 도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은유 표현이 만들어진다.

- (7) ㄱ. 그가 귀에 대고 뭐라고 입을 달싹거렸다.
 ㄴ. 그가 귀에 대고 뭐라고 주둥이를 달싹거렸다.
 ㄷ. 누가 함부로 아가리를 벌리겠는가.
 ㄹ. 뭘 북한이라도 갔다 온 것 마냥 부리를 털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³⁾

위의 예에서 (7ㄴ-ㄷ)은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동물의 ‘기관’을 매개어로 하여 인간과 관련된 행위를 표현하는 은유 표현이다. 그런데 이를 (7ㄱ)과 비교해 보면, 인간의 신체 부위명인 ‘입’ 대신 동물 부위명인 ‘주둥이’, ‘아가리’, ‘부리’가 사용된 (7ㄴ-ㄷ)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7ㄷ)은 은유 표현에 나온 동물 부위가 가치의 하락과 관련됨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7ㄱ)에서 ‘입’은 말하는 기관의 의미로 쓰였는데, 말하는 행위를 개념화할 때에는 ‘입을 벌리다, 입을 열다, 입을 달싹거리다, 입을 털다’ 등을 사용하게

2) 임지룡(2012)에서는 사전 두 권을 조사하여 동물 속담의 경우 부정적 인지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Lakoff&Turner(1989)에서는 인간은 고등 존재물로서 사람이 하는 고유한 행동이나 심리, 혹은 처한 환경, 소유하는 물건 등은 하위 층위에 해당하는 동물, 식물, 무생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존재의 대연쇄 이론을 제시하였다.

3) 트위터, 2020.01.02. <https://twitter.com/LetMeArrested/status/1212702712636178437?s=20>

된다. 이 중 ‘입을 털다’는 말하는 행위의 가치를 낮추는 표현인데, 이러한 가치의 하락은 ‘반복적으로 입을 벌려 말하는 행위’를 ‘물건을 흔들면서 터는 행위’로 개념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7ㄷ)에서 볼 수 있듯이, 새의 부위명인 ‘부리’는 주로 ‘털다’와 결합하여 말하는 행위를 개념화한다. 이는 ‘부리를 털다’가 오로지 비속한 표현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 부위와 대응되지 않는 동물 부위의 경우 항상 부정적 가치 평가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신체 부위에 대응되는 동물 부위명이 포함된 은유 표현은 <부정적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은유 도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인간의 신체 부위에 대응되지 않는 동물 부위명이 포함된 은유 표현은 이러한 은유 도식에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날개, 꼬리, 더듬이, 뿔’ 등 인간의 신체 부위에 대응되지 않는 동물 부위의 개념화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8) 가. 그 기업은 최근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았다.
 나. 신발 산업이 부활의 날개를 띄고 있다.
 다. 물건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

위의 표현은 동물의 행위와 관련되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동물이 그 행동을 할 때의 상황을 근원영역으로 하여 인간의 행동과 그와 관련한 사태를 개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에 나온 ‘날개’는 새의 부위이고 새는 날 수 있는 동물이다. 날개 달린 새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데, 날개를 펴는 행동은 위로 솟구치거나 멀리 이동하기 위한 행위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8)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영역으로 은유적 개념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개념화의 결과는 긍정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화는 <위는 좋은 것이다>라는 은유 도식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위는 좋은 것이다>라는 은유 도식에 따라 ‘날개’로 ‘세력, 힘, 능력’을 개념화했기 때문에, ‘날개’를 통해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나 확산의 상태도 긍정성을 띠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아래는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은유 도식을 가정할 수 있는데, 이는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ㄱ. 머리가 되고 싶은 꼬리

ㄴ. 꼬리만 잡았을 뿐이지 몸통에는 접근조차 못했다.

(9ㄱ)에서 ‘꼬리’는 ‘머리’와 대비되는데, 몸의 위치상 ‘머리’는 위이고 ‘꼬리’는 아래라는 사실에 기대어 ‘꼬리’의 개념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에 해당하는 ‘머리’는 좋은 것이지만, 아래에 위치한 ‘꼬리’는 좋지 않은 것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화의 맥락에서 ‘꼬리’는 ‘머리’를 지향한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9ㄴ)에서는 ‘꼬리’로 ‘말단’이나 ‘부수적인 것’을 개념화하는데, 이는 <아래는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은유 도식이 <주변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은유 도식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꼬리’는 아래에 위치한 데다가 돌출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가치 평가를 개념화하는 데에 활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같은 돌출된 부위라 하더라도 ‘뿔’이나 ‘더듬이’는 ‘꼬리’와 달리 부정적 가치 평가를 개념화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10) ㄱ.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소재와 인물에 대해 관심을 두고, 더듬이를 세우다

보면 처음에는 추상적이었던 게 구체화하면서 영화 상(像)이 그려진다.⁴⁾

ㄴ. 그 아이가 한번 뿔을 세우면 달랠 도리가 없다.

ㄷ. 그는 3학년이 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위의 예에서 ‘더듬이’와 ‘뿔’은 핵심에서 벗어난 부위이지만 핵심적인 속성이 반영된 부위로서 개념화가 된다. 이러한 개념화 양상은 두 부위가 ‘머리’와 인접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뿔’과 ‘더듬이’는 ‘머리’의 돌출된 부위라는 점에서 핵심의 가치가 반영된다.

(10ㄱ)의 ‘더듬이를 세우다’는 특정 대상에 관심을 두거나 주목하는 상황을 개념화하고 있고 (10ㄴ)의 ‘뿔을 세우다’는 성질을 내는 상황을 개념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 ‘뿔’은 ‘더듬이’와 달리 ‘화’나 ‘성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성질을 내는 상황이 자존심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뿔’이 ‘머리’에 달린 부위라는

4) 뉴시스, 2017.06.23.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623_0000020782&cID=10601&pID=10600

사실은 ‘뿔’을 통해 ‘자존심’과 ‘정체성’을 개념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0ㄷ)에서 ‘두각을 드러내다’가 재능이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개념화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0)에서의 은유 표현도 결국 <위는 좋은 것이다>라는 은유 도식이 개입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위는 좋은 것이다>라는 은유 도식은 ‘더듬이를 세우다’나 ‘뿔을 세우다’가 동물의 행동임에도 <부정적인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은유 도식의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꼬리’와 관련한 동물의 행동이 <부정적인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은유 도식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대비된다.

- (11) 가. 애인이 있는 사람에게 꼬리를 치다니.
 나. 그는 꼬리를 흔들며 아양을 떨었다.
 다.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에 그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위의 은유 표현에서는 동물의 행동으로 ‘유혹’이나 ‘굴복’을 개념화하는데, 이러한 은유 표현은 유혹하거나 굴복하는 행동을 낮춰 말할 때 쓰인다. ‘꼬리’가 <아래는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은유 도식에 따라 개념화 작용을 하면서, (11)에 나타난 동물의 행동은 <부정적인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은유 도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꼬리’가 포함된 은유 표현에서 <부정적인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도식은 동물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12) 가. 더 이상 내 말에 꼬리를 달지 마.
 나. 학생들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다. 경찰은 행렬의 꼬리 부분을 차단했다.
 르. 모양도 꼭지 빠진 새같이 볼품없었다.

(12가)은 덧붙여 말하는 상황을, (12나)은 어떤 사건이나 생각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12다)은 길게 이어진 것의 끝부분을 개념화하고 있어 동물의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해당 상황에 대한 가치 평가도 주어진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12ㄱ-ㄷ)의 예에서 ‘꼬리’가 가치 중립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즉, 이들 표현에서 ‘꼬리’는 <아래는 좋지 않은 것이다>란 은유 도식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간은 동물이다>란 은유 도식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위의 예에서 ‘끝부분’을 의미하는 ‘꼬리’가 수직적인 위아래가 아닌 수평적인 앞뒤의 개념으로 개념화된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12ㄷ)에서 새의 꿈무늬에 달린 ‘꽂지’는 ‘꼬리’에 대응되는 부위라 할 수 있지만, ‘꽂지’는 새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부위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외모’를 개념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은유적 개념화에서 짐승의 ‘꼬리’와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2. ‘동물명’과 ‘부위명’이 통합 구성을 이룬 경우

앞서 밝혔듯이 ‘동물명+부위명’의 통합 구성을 이루는 은유 표현은 동물의 ‘모습, 행동, 관계’가 동물 부위의 ‘형상, 기능, 가치’와 상호작용하여 인간의 ‘모습, 행동, 관계’를 개념화하는 은유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은유에서는 동물의 부위에 대한 인간의 경험적인 지식이나 동물에 대한 가치 평가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 (13) ㄱ. 저녁때가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무겁다.
 ㄴ.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하인들도 여럿 있었다.
 ㄷ. 그는 양다리를 넘어 문어 다리, 오징어 다리 수준이었다.
 ㄹ. 실속 없는 용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라.

위에서 (13ㄱ)은 ‘코끼리’의 크기에 기대어 ‘다리’의 크기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은유 표현이다. 이러한 은유 표현은 형상의 유사성에 기댄 은유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동물의 부위를 인간의 신체 부위와 대응시켜

5) 익명의 심사위원은 (12ㄱ)의 ‘꼬리를 달다’는 <부정적인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은유 도식에 영향을 받는 (11)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12ㄱ)은 말의 끝부분에 말을 더 보태는 상황을 은유화하는 것으로서, 보태는 말 혹은 말을 보태는 상황이 부정적일 수는 있겠으나 항상 그러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말꼬리’는 ‘한마디 말이나 한 차례 말의 맨 끝’을 나타내는 말로 중립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개념화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신체 부위에 대해 부정적인 속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 은유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두꺼비눈, 개구리눈, 복의 배, 물개수염, 돼지 털...’ 등은 사람의 모습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동물 은유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13ㄴ)은 동물의 부위를 인간의 신체와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물 부위의 크기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크기와 관련하여 개념화되는 동물명과 해당 부위명이 통합된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 동물 부위(등)의 개념화와 해당 동물(고래)의 개념화가 상호작용하여 ‘고래 등’으로 개념화하는 대상의 크기를 강조하게 된다. 여기에는 <큰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은유 도식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개꼬지, 노루 꼬리, 두꺼비 꼬지, 벼룩의 간, 게딱지, 벼룩의 등, 벼룩의 불알, 쥐뿔...’ 등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개념화하는 것과 대조된다.

(13ㄷ)은 특정 동물의 두드러진 형상을 기반으로 은유적 개념화가 일어나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리’는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와 ‘오징어’의 형상적 특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나치게 여러 군데 관계 맺는 인간’을 개념화한다. 이는 두 편에 다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의 ‘양다리를 걸치다’, ‘두 다리를 걸치다’라는 관용 표현의 개념화 작용을 확장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ㄹ)은 ‘용’과 ‘뱀’에 대한 가치 평가에 근거해 인간을 개념화하고, 이를 ‘꼬리’와 ‘머리’의 위치 형상과 연계하여 은유적 개념화를 완성하는 예이다. 여기에서 용은 상상의 동물로 뱀보다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동물 부위명인 ‘머리’와 ‘꼬리’가 ‘위’와 ‘아래’에 대한 은유 도식에 따라 각각 ‘ 좋음’과 ‘ 좋지 않음’을 개념화함으로써, ‘용’과 ‘뱀’의 가치가 ‘용꼬리’와 ‘뱀의 머리’에서 역전되었다.

(13)에서 거론한 예를 보면, 동물과 동물 부위의 ‘형상’을 근원영역으로 하는 은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은유 표현은 대부분 가치가 낮음을 표현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동물 부위 형상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높은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따라서 (13ㄴ)처럼 <큰 것이 좋은 것이다>나 (13ㄷ)처럼 <위는 좋은 것이다>와 같은 은유 도식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그 의미 가치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징적

동물이 동물 부위명과 결합하면서, 해당 동물의 두드러진 기능이 개념화의 근원영역이 된다면, 해당 동물 부위는 우월성의 차원에서 인간의 속성을 개념화할 때가 많다.

- (14) 가. 개코
 - 나. 고래힘줄
 - 다. 매의 눈, 독수리눈, 독사눈
 - 르. 범의 어금니, 이빨 빠진 호랑이, 범의 아가리
 - 미. 범의 날개, 범의 등에 날개를 단 듯

(14가)의 예는 ‘개’와 개의 두드러진 특성 부위인 ‘코’가 결합하여 ‘냄새를 아주 잘 맡는 사람’을 개념화한다.⁶⁾ (14나)의 예는 ‘고래’와 고래의 두드러진 특성 부위인 ‘힘줄’이 결합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질긴 사람’을 개념화한다. (14다)의 예는 ‘매, 독수리, 독사’ 등 사나운 동물과 그런 동물의 두드러진 특성 부위인 ‘눈’이 결합하여 아주 날카롭고 사나운 눈을 개념화하거나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개념화한다. 특히 ‘매의 눈’의 경우는 사냥 본능이 뛰어난 ‘매’와 ‘눈’을 통합함으로써 ‘뛰어난 관찰력’이나 ‘뛰어난 관찰력을 지닌 사람’을 개념화한다. (14르)의 예는 맹수인 ‘호랑이(범)’와 맹수의 가장 중요한 특성 부위인 ‘이빨’이 결합하여 ‘무서운 사람이나 공간’ 또는 ‘필수적인 것’ 등을 개념화한다. 특히 ‘이빨 빠진 호랑이’는 맹수의 필수적인 부위의 결핍을 통해 ‘능력이 없는 사람’, 혹은 ‘능력이 다한 사람’을 개념화한다.

(14)의 예는 동물 부위명이 동물 부위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기능을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하는 동물을 나타내는 말과 통합하게 되면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대상을 개념화하게 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14가)처럼 비속함을 상징하는 동물과 결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낮은 가치를 개념화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은 (13)에서처럼 동물 부위의 ‘형상’에 초점을 둔 은유 표현이 대부분 가치를 낮추는 데 활용되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는 개념화에 동물

6) ‘개코’가 ‘말이 되기는 개코냐’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는 ‘코’의 ‘기능’과 관련 없는 맥락에서 사용된 예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개’가 가지는 하찮음과 ‘코’가 가지는 부수적인 의미가 결합하여 ‘별 볼 일 없다’라는 가치 하락의 의미를 나타낸다.

부위의 ‘형상’이 활용되느냐 ‘기능’이 활용되느냐와 해당 동물이 어떤 상징성을 띠느냐가 은유적 개념화의 특성을 결정함을 말해 준다. (14口)의 ‘범의 날개’는 동물과 부위명이 일치하지 않은 구성으로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개념화하지만 ‘기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14ㄱ-ㄴ)과 같다. 다만 ‘힘’과 ‘위세’를 개념화한 ‘범’과 ‘힘’, ‘위세’, ‘능력’ 등을 개념화한 ‘날개’가 실제 층위가 아닌 은유적 개념화 층위에서 통합되면서 강조의 의미가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보면 ‘동물명+부위명’의 통합 구성은 동물 부위의 ‘형상’과 ‘기능’을 부각하여 개념화의 근원영역으로 삼음으로써 동물 부위명이 단독으로 활용되는 개념화의 양상보다 은유적 개념화를 다양화함을 알 수 있다.

4. 동물 부위 은유의 관계망과 은유 표현의 확장 원리

4.1. 은유의 관계망과 은유 표현의 확장

은유의 생성과 해석 원리를 의미장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논의는 Kittay(1987)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처럼 근원영역의 의미장이 은유적 개념화에 작용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은유 표현이 생성되고 해석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⁷⁾ 다음과 같은 담화는 은유 표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미장 내의 관계망이 환기됨을 잘 보여준다.

- (15) 이게 감염병의 단계가 있는데 추적 관리가 가능한 단계가 있고 추적 관리가 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이걸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고기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고기가 있는 곳에 낚시를 했다면 이제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있어 보이는 곳에다가 투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⁸⁾

위의 예에서 ‘고기를 잡는 일’은 ‘감염병 환자를 찾는 일’을 개념화하는데, ‘고기를 잡는 일’이라는 의미장에서 ‘고기를 잡는 도구’로서 ‘투망’과 ‘낚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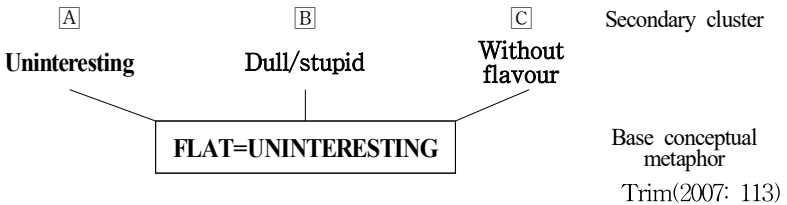
7) 정원용(1996)과 최경봉(2002) 등에서는 은유 표현의 생성과 해석 양상을 의미장 이론과 연결지어 설명한 바 있다.

8) CBS 라디오, 2020.02.21. <김현정의 뉴스쇼>

관계망이 ‘감염병 환자를 찾는 방법’을 개념화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은유 표현에 접근하는 연구의 주된 문제의식은 ‘근원영역의 의미장이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면서 목표영역의 의미장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은유의 형성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은유 표현에 작용하는 관계망을 살펴보는 일은 개념적 은유 이론이 제기된 이후의 모든 은유 연구에서 중심적인 탐구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원영역에서의 관계망과 목표영역에서의 관계망이 상호작용하는 양상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관계에서 형성된 기본 개념 프레임이 담화맥락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이는 근원영역의 의미장에 초점을 두는 연구와 달리 하나의 근원영역이 개념화하는 목표영역의 확장에 초점을 두는 연구라 할 수 있다. Trim(2007)에서는 기본 개념 은유 (base conceptual metaphor)가 담화맥락에서 변이되어 특정 개념으로 확장 연결되는 경로를 통시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은유적 개념화의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때 기본 개념 은유는 인지의미론에서의 기본 층위 속성(basic-level property)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본 개념 은유가 담화맥락에서 변이되어 복수의 2차적인 개념 은유 프레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16) 근원영역이 개념화하는 목표영역의 확장 양상⁹⁾



(16)은 영어에서 <평평하다=재미없다>라는 기본적 개념화 프레임이 담화맥락에서 2차적으로 <평평하다=재미없다>, <평평하다=우둔하다>, <평평하다=맛없다>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¹⁰⁾ 이때 <평평하다=재미없다>가 확

9) Trim(2007: 113)의 도식 7.2에 기반하되, 여기에서 통시적 변화 양상을 제외한 것이다.

10) 이러한 이차적 확장은 시기와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한국어의 개념화 맥락에서는 <맛맛

장되어 형성한 2차적 개념 은유 도식들은, ‘평평하다’가 포함된 ‘사물의 굴곡’ 의미장이 ‘재미’의 의미장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음식의 맛’ 등의 의미장과 상호작용하여 은유 표현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사물의 굴곡’과 관련한 의미장에서 ‘울퉁불퉁하다, 들쭉날쭉하다, 튀어나오다, 밋밋하다...’ 등의 관계망이 ‘성격’이나 ‘음식의 맛’이라는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 근원영역의 관계망과 목표영역의 관계망이 상호작용하여 은유 표현을 생성하는 양상과 더불어 기본 개념 은유에서 사상하는 목표영역이 담화맥락을 통해 확장되는 양상을 포착하는 것이 은유 표현의 확장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접근법은 동물 부위 은유의 특성과 확장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

동물 부위 은유는 동물 은유와 연결되는 한편 부위명으로서 여러 종(種)의 부위와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관계망이 여러 차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동물명과 동물 부위명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다양하고, 이런 이유에서 관습적 인식에 기대어 이루어진 동물 부위 은유의 기본 개념은 담화맥락에 따라 변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 부위 은유의 기본 개념이 변이되면서 동물 부위명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목표영역이 확장되는 양상을 포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2. 동물 부위 은유에서의 관계망과 은유 표현의 확장

3장에서 보았듯이 동물 부위 은유의 개념화 양상은 동물 부위의 관계망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머리’와 ‘꼬리’가 위치 형상의 관계에 따라 은유적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관계망은 동물 간 부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 부위와 동물 부위를 넘나들며 형성된다.

- (17) ㄱ. 그는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꼬리를 잡혀 검거되었다.
 ㄴ. 그의 만행은 감사팀에게 뒷덜미를 잡힐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다=우둔하다>의 확장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ㄷ.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실수로 인해 뒷다리를 잡힌 꼴이 되었다.

(17)의 예는 ‘약점이나 비밀을 들키는 상황’을 개념화하는 관용적 은유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에는 ‘꼬리’, ‘뒷덜미’, ‘뒷다리’ 등의 부위명이 관여하는데, 이는 ‘앞과 뒤’, ‘위와 아래’, ‘핵심과 부분’ 등의 은유 도식과 관련하여 관계망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은유적 개념화의 관계망은 동물 부위만이 아니라 동물 부위가 관여하는 사태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3장에서 살핀 ‘날개’의 경우, 이 부위가 ‘능력이나 힘’을 개념화하는 것은 ‘날개’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능을 나타내는 활동이 은유적 개념화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때 ‘날개’의 기능과 관련한 기본적인 활동은 ‘날개를 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은유적 개념화에서 근원영역을 이루는 것이 ‘날개를 퍼는 활동’이라 할 때, 은유 표현의 확대는 ‘날개’의 기능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은유적 개념화에 활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다음 은유 표현은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18) ㄱ. 우버 방식의 트럭 공유 서비스가 중국에서 날개를 펴고 있다.¹¹⁾
- 나. 불황기에도 명품 브랜드들은 세계 곳곳에서 날개가 돌친 듯 팔려 나갔다.¹²⁾
- ㄷ.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날갯짓을 하는 그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¹³⁾
- ㄹ. 항공주가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날개가 꺾였다.¹⁴⁾
- ㄴ. 그 경우 경제는 날개 부러진 새처럼 맥없이 추락할 것이다.¹⁵⁾

여기에서 은유적 개념화 작용은 ‘날개를 퍼다’라는 기본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그 활동의 전제가 되는 상태 및 활동 유지를 위한 활동과 활동의 결과로 확장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연합뉴스, 2017.05.03. <https://www.yna.co.kr/view/AKR20170503071200083?input=1195m>

12) 국민일보, 2018.09.0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03157>

13) 한국대학교스포츠협의회, 2018.10.24.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573&aid=0000002168>

14) 한국경제, 2004.09.17.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04091715198>

15) ifspost, 2018.11.13.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93

(19) 은유적 개념화 작용의 전개 과정

- 기본 활동: 날개를 펴다
- 전제 상태: 날개가 돋다, 날개를 달다
- 활동 유지: 날갯짓을 하다
- 활동 결과: 날개를 접다, 날개가 꺾이다, 날개가 부러지다

이를 보면 은유 표현의 확대는 기본 활동을 기반으로 활동의 전제와 결과를 근원영역에 포함하면서, 이를 ‘능력이나 힘을 발휘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상황’의 목표영역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태의 관계망이 관여하여 은유 표현이 확장되는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날개’는 ‘능력이나 세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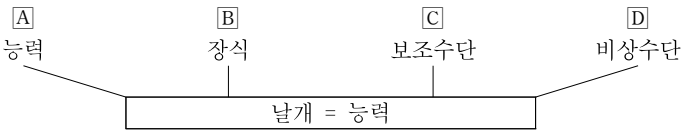
(20) ㄱ. 옷이 날개라면 정작 중요한 것은 몸뚱이라는 거...

ㄴ. 와인, 라벨이 날개다.

ㄷ. 날개를 준비한 사람은 추락이 두렵지 않다.

(20ㄱ)에서 ‘날개’는 ‘본질’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을, (20ㄴ)에서는 ‘본질’만큼 중요한 것으로서의 ‘보조수단’을, (20ㄷ)에서는 ‘비상수단’을 개념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장식’이나 ‘보조수단’을 ‘날개’로 개념화함으로써, 이를 부수적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능력과 질을 부각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날개는 능력이다>라는 기본 개념 도식이 담화맥락에 따라 일정한 변이를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날개’가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이 다양해지면서 ‘날개’가 개념화하는 목표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21) 은유적 개념화에서 ‘날개’의 변이 양상



(21)는 기본 개념 은유 도식인 <날개는 능력이다>가 2차적으로 <날개는 장식

이다>, <날개는 보조수단이다>, <날개는 비상수단이다>와 같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동물명+동물 부위명’의 통합 구성에서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에서의 관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 (22) 가. ‘매의 눈’ 고양시 CCTV 관제요원에 딱 걸린 ‘4인조 절도단’¹⁶⁾
- 나. 여전히 부동산시장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정부¹⁷⁾
- 다. 송훈 셰프가 매의 눈으로 3기 체자들을 평가했다.¹⁸⁾
- 르. 가수 홍진영은 “매추리, 매의 눈으로 추리해 보겠다”고 열정을 보였다.¹⁹⁾

위에서 ‘매의 눈’이 은유의 근원영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근원영역으로 다양한 목표영역을 개념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눈’과 ‘매’가 근원영역으로 동시 작용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3) ‘눈’과 ‘매’의 개념화 기반

<눈>

기본 기능: 관찰

확장 기능: 관찰=평가, 관찰=추리

<매>

부류: 맹금류

주요 활동: 사냥

(22)의 예에서 은유적 개념화는 (23)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22가, 나)은 ‘눈’의 기본 기능인 ‘관찰’과 관련하여 은유적 개념화가 이루어졌고, (22다, 르)은 확장 기능인 ‘평가’ 및 ‘추리’와 관련하여 은유적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매’는 관찰, 평가, 추리의 능력을 강조하는 요소로서 은유적 개념화에 참여한다. 이는 ‘매’가 사냥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이런 점에서 ‘사냥’은 은유적 개념화의 핵심 맥락으로 작용한다.

16) 신문고뉴스, 2020.02.15. <http://www.shinmoongo.net/134138>

17) 머니투데이, 2020.02.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310382379913>

18) 뉴스엔, 2020.02.06.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002052017161610

19) 뉴스엔, 2020.01.24.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2001241250246210

인간의 활동을 사냥으로 개념화하는 맥락에서 동물 은유를 사용한다면 맹수류 혹은 맹금류가 근원영역으로 채택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매’는 근원영역의 후보가 된다. 그리고 담화맥락에 따라 ‘사냥’의 진행 과정에 대한 스크립트가 활성화되면서, 근원영역에서 신체의 부위인 ‘눈’, ‘발톱’ 등의 관계망이 형성된다.

(24) ‘사냥’의 스크립트

관찰 ⇒ 발견 ⇒ 선택 ⇒ 집중 ⇒ 접근 ⇒ 공격 ⇒ 포획

‘관찰, 발견, 선택, 집중’의 스크립트 내 사냥으로 개념화한 인간의 활동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매의 눈’과 같은 은유 표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크립트 중 ‘공격’ 및 ‘포획’의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매의 발톱’이 은유 표현으로 쓰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냥의 맥락에서 ‘발톱’은 ‘공격 기관’이나 ‘포획 기관’을 개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자.

(25) ㄱ. ‘매의 발톱’ 드러낸 이주열, 하반기 금리 인상 시사²⁰⁾

ㄴ. 제품 파월 연준 이사가 비둘기와 성향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매의 발톱을 감추고 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²¹⁾

ㄷ. 전세가율이 65%를 넘어서는 순간 현금 부자들이 ‘매의 눈’으로 바로 보고 있다가 매물만 나오면 ‘매의 발톱’으로 순식간에 채 갈 것이다.²²⁾

위의 (25ㄱ)은 어떤 공격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음을 보여주는 예이고, 반면 (25ㄴ)은 (25ㄱ)의 ‘드러내다’와 대비되는 ‘감추다’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리 공격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때 ‘비둘기’라는 새의 상징성과 ‘매’의 상징성이 대비되면서 표면과 이면의 극단적 대비를 보여준다. 이는 동물의 관계망이 동물 부위 은유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5ㄷ)은 ‘매의 눈’과 ‘매의 발톱’이라는 부위 간 관계망을 사냥의 단계와 관련지어 목표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20) 서울파이낸스, 2018.07.27.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428>

21) 연합뉴스포맥스, 2017.10.31.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8968>

22) 파이낸셜뉴스, 2019.12.23. <https://www.fnnews.com/news/201912231558108401>

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근원영역이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것과 사냥의 단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관계망

근원영역	사냥의 단계	목표영역
매의 눈	관찰, 발견	관찰 및 감시 수단
	선택, 집중	평가 및 추리 수단
매의 발톱	공격	공격적 조치 수단
	포획	획득 수단

그런데 매나 독수리 등 맹금류의 ‘발톱’이 사냥의 의미장에서 사냥감을 공격하거나 포획하는 수단을 뜻하게 되면, ‘발톱’은 특정 동물과 연결되지 않고도 단독으로 ‘공격성’을 은유적으로 개념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26) ㄱ. 류 “20승 하고 싶다.” … 발톱 세운 괴물 본능.²³⁾
 ㄴ. 그는 발톱을 감추고 나를 치켜세웠다.
 ㄷ. 이번에는말로 손톱, 발톱 다 빠진 현역 의원을 짓힐 기회인데 또 낙하산 공천이라니….²⁴⁾

위의 예에서 (26ㄱ,ㄴ)은 공격을 암시하는 상황에서 ‘발톱’을 사용한 은유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발톱’이 맹금류가 사냥감을 포획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위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유 표현에서 ‘발톱’은 근원영역으로서 ‘공격수단’을 개념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26ㄷ)은 ‘발톱’이 맹금류의 포획 수단이라는 데에서 출발한 개념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교차 양상을 보여준다. 즉, ‘맹금류’가 전제된 것으로 이루어진 개념화 과정에서 목표영역과 관련된 인간의 부위 정보가 개입되어 ‘손톱’이 개념화 과정에 포함된 것이다.

이상을 통해 동물 부위명 관계망과 그 작용, 동물 부위의 기능에 초점을 둔 사태의 관계망과 그 작용, 담화맥락에서 의미장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관계망

23) 서울신문, 2019.01.3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31026012>
 24) 뉴스핌, 2020.02.18. <http://www.newsipm.com/news/view/20200217001195>

의 작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담화맥락에 따라 목표영역이 확장되는 양상과 연결지어 보면서 은유 표현의 확장 양상을 설명했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동물 부위명이 나타난 표현에서의 은유 양상을 살펴보면서, 동물 부위 은유의 특징과 작용 원리를 밝혔다. 동물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은유의 재료로 흔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은유적 개념화나 관용 표현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목을 받은 것은 동물 은유로, 동물 부위 은유는 동물 부위를 동물로 환유하거나 인간의 신체 부위에 대응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동물 부위 은유에 주목하여 그 특징과 개념화 작용의 원리를 설명하고 동물 부위 은유 표현의 확장 가능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동물 은유와 동물 부위 은유의 상관성을 설명하면서, 동물의 은유적 개념화에서 무각되는 ‘모습’, ‘행동’, ‘관계’가 동물 부위의 ‘형상’, ‘기능’, ‘가치’와 상호작용함을 밝혔다. 그러나 동물 부위 은유는 ‘환유적 개념화’와 ‘은유적 개념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동물 은유보다 개념화 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3장에서는 동물 부위 은유 표현의 구성 형식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어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동물 부위명’만이 포함된 은유 표현에 주목하였다. 이 경우 동물 부위가 인간 신체에 대응하는 유형과 대응하지 않는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전자는 부정적 가치 평가와 주로 관련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인간의 신체 부위와 대응되지 않는 부위의 경우, 대개 상하 관계 은유 도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날개’, ‘빨’, ‘더듬이’ 등은 <위는 좋은 것이다>라는 은유 도식과 관련하였으며, ‘꼬리’는 <아래는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은유 도식을 따랐다. 그러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와 같이 수평적인 앞뒤의 개념으로 개념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도식

에서 벗어나 가치 중립적으로 사용되었다.

2절에서는 ‘동물명’과 ‘부위명’이 결합한 은유 표현을 살폈다. ‘동물명+부위명’의 통합 구성은 주로 동물 부위의 ‘형상’과 ‘기능’을 근원영역으로 삼고 있었는데, ‘형상’에 초점을 둔 은유 표현은 대부분 가치 하락과 관련되었다. 반면 ‘기능’에 초점을 둔 표현은 그러한 기능을 두드러지게 활용하는 동물명과 통합하게 되면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대상을 개념화하였다.

4장에서는 동물 부위 은유에서 포착되는 관계망과 그 관계망을 통해 은유 표현이 확장되는 작용 원리를 규명하였다. 1절에서는 은유 표현의 확장 가능성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동물 부위명의 관계망과 이를 통해 개념화하는 목표영역의 관계망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살피고, 기본 개념 은유에서 사상하는 목표영역이 담화맥락을 통해 확장되는 양상을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절에서는 동물 부위명의 관계망과 그 작용 등을 살펴보면서, 담화맥락에 따라 목표영역이 확장되는 양상과 연결하여 은유 표현의 확장 양상을 설명하였다.

참고문헌

- 구현정(2011), “관용 표현의 확장 기제: 신체어 ‘머리’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8-3, 담화·인지언어학회, 1-22.
- 김숙정·도원영·최경봉(2019), “은유의 범주와 유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관점에서”, 겨레어문학 62, 겨레어문학회, 221-249.
- 김정아(2015), “동물명 관용 표현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양상”, 국제언어문학 32, 국제언어학회, 149-174.
- 김해연(2014), “국어 문어 말뭉치 분석을 통한 머리와 꼬리의 의미 비교 연구”, 한국어 의미학 44, 한국어의미학회, 59-88.
- 김혜령(2016), “속담 기반 표현의 특성”, 한국어 의미학 54, 한국어의미학회, 203-229.
- 도원영 외(2018), “은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론”, 한국어 의미학 61, 한국어의미학회, 55-79.
- 임지룡(2007), “신체화에 기초한 의미 확장의 특성 연구”, 언어과학연구 40, 언어과학회, 1-31.
- 임지룡(2012), “현대 국어 동물 속담의 인지언어학적 가치론”, 국어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377-404.

- 임지룡(2016), “신체어의 의미 확장 양상과 해석”, *배달말* 59, *배달말학회*, 1-43.
- 정원용(1996), “隱喩의 意味와 構造”, *논문집* 17-1, *경성대학교*, 47-62.
- 정희자(2002), “관용어에 나타난 신체어의 의미 확장”, *외대논총* 24, *부산외국어대학교*, 355-378.
- 최경봉(1997), “은유 표현에서의 단어의 의미론적 역할”, *한국어 의미학* 1, *한국어어미학회*, 171-190.
- 최경봉(2002), “은유 표현에서 어휘체계의 의미론적 역할”, *한국어학* 15, *한국어학회*, 283-306.
- 최지훈(2010),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 연구*, *혜안*.
- Kittay, E.F.(1987), *Metaphor: its Cognitive Force and Linguistic Structure*, Oxford: Clarendon.
- Kövecses, Z.(2006), *Language, Mind and Culture: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koff, G.&M. Turner(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rim, R.(2007), *Metaphor Networks: The Comparative Evolution of Figurative Languag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유희정(제1 저자)
고려대학교(박사 수료생)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2841
전화 번호 : 02-3290-1960
전자 우편 : verydalki@daum.net

최경봉(교신 저자)
원광대학교(교수)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4538
전화 번호 : 063-850-6149
전자 우편 : kbchoi@wku.ac.kr

원고 접수일 : 2020. 04. 21.
원고 수정일 : 2020. 06. 12.
게재 확정일 : 2020. 06. 12.